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 1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 2절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철을 따라 물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559장 사철에 봄 바람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묵도 다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1-4절)

찬송 다같이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기도 가족중에서

성경읽기 시편 23편 1-6절 / 온가족이 함께

말씀나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축복과
비전나눔 온 가족이 함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덕담으로 축복하며 자녀들은 자신의
비전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찬송 다같이
559장 사철에 봄 바람

예배마침 주기도문 / 다같이



시편 23편 1-6절

- 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

설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목자가 먹을 것을 찾아주고, 건강을 챙겨주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우리도 양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생 살아가다보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용맹하며 최고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은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하는 양과 같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되신 주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주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맞닥뜨리는 것처럼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골짜기 너머 너른 들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